어려웠던 부분

1. 그리드와 플렉스로 디바이드를 계속 분할하는 과정에서, 3시간 이상 작업하다보니 구조 이해 능력이 급감했다. 저스티파이 컨텐트와 얼라인 아이템, 플렉스 디렉션을 중복사용해 지면을 낭비한 것 같다.
2. 분명 공유한 CSS를 적용했는데 메인 페이지와 헤더 크기가 달랐다. CSS는 전체 레이아웃, 색상, 폰트, 타이틀, 자간과 행간 등의 요소 사용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먼저 한 사람이 제작한 후, 주석을 잘 깔아주고 양질의 코드 리뷰를 해줘야 할 것 같다.
3. HTML과 CSS를 써서 겨우 한 페이지 만들었는데 진이 다 빠진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입력, 유지보수까지 할 걸 생각하면 참으로 두근두근하다.
4. CSS도 종류가 참 많다. CSS 코드가 1000줄 넘어갈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가면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었다.
5. AI는 디버깅을 못해주므로, 지피티나 클로드 코드 복붙하면 위험해진다. 나중에 코드 전체 넣어서 코드 리뷰 돌리면, 멍청한 소리를 시작한다. 그렇게 질문과 시간, 인간성을 계속 낭비하기 싫다면 제대로 기획한 후 핀포인트의 질문을 하고, 필요한 코드만 빼낸 후 따로 주석 처리를 해야겠다.

느낀 점

1. 원본 사이트에서는 픽스드 된 헤더가 스크롤을 올리면 다시 펼쳐지는 동적 효과를 구현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서 동적 언어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
2. 홈페이지 하나를 구현하는 과정이 지난할 것 같다. 블록 단위로 제작할 수 있었던 워드프레스나 WIX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각이다.
3. 한땀한땀 원하는 요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건 프론트엔드의 매력이다.